

시론

IMF졸업 언제일까

얼마 전 북경에 잠시 다녀왔다. 통일관계 자료수집을 위해서 비교적 자주 방문하는 중국이지만 갈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공방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스카이라인(도심의 선)이 변하는 것이 첫 눈에 와 닿는다.

김대통령 국민과 대화 "오늘의 어려움 참아내야"

고층건물과 대형 쇼핑센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그도 그럴 것이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어쩌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한마리 경제적 용(龍)'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런에도 몇몇 조선족 친지를 만났더니 "한국은 IMF 관리체제를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 또한 "중국교포는 더이상 코리아드림을 찾아 한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그때마다 "한국은 또다시 경제 기적을 이룰 것이다. 과거에는 관 주도형의 경제성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 금융, 국민이 새로운 조화를 이룬 선진국형 모델이 될 것"이라



민병용

(한국일보 미주본사 논설위원)

협동·단결의 민족정신 되살려야 모두 산다

역사 이래 국난을 너무 많이 당한 우리 민족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인내와 의지가 어느 민족과 다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서로 돕고 돕지는 기질이 있다. 고난속에 피어나는 이웃 사랑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민족성이 되살아 날 때 IMF의 조기극복은 가능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서로가 믿고 도울 때 IMF는 2년내에 1단계를 졸업할 수 있다. 그야 김대통령의 설명처럼 '2000년에 다시 도약하고 2001년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대통령이 '국민과의 TV대화'에서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철후갈던 IMF타격을 빠져 나왔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고 싶다.

여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청와대 미사·예배

김대중대통령과 부인 이희호여사가 신부와 목사를 청와대로 초청, 미사 및 예배를 보기로 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이와 관련 "주말 외부출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교인들의 불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취임 초 청와대에배가 특정종교 편향이라는 물의를 빚은 적이 있으며, 이후 해물 사태가 이어졌음을 상기하며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수도 사실이다. 반면 개인의 신앙 생활은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대통령의 청와대내 미사·예배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국민이질감 우려 공인 종교활동 자제

송강 <종교변화대책위원장·미타사 주지>

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사를 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이다. 국정을 운영하자는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적인 일들은 피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기에 국민에 대한 처신이 더욱 중요하며, 어느 때는 개인의 이익까지도 미뤄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요즘은 국민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먼저 없애야 하는 시점이다. 다같이 힘을 합쳐 국가극복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에서 개인적인 신앙활동을 위해 미사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미사를 보으로써 종교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의 종교활동이 공식화나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자칫 대통령의 종교를 밀착해 자기종교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일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과거정권에서 보아왔다. 물론 지금의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권에서 각료들의 종교편향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의 눈길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국민정부는 이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종교자유 차원 이해해야

권기중 <종교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공인(公人)'이라는 위치는 지키기 힘든 자리다. '대통령'의 위치는 더 많은 특수성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인이기에 한 '개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공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지켜주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종교라고 본다. 대통령 개인의 종교와 국가정책의 혼동은 절대 있어서 안됨을 물론이다. 한 개인이 종교를 통해 얻는 정신적, 심리적 위안과 편안함은 매우 크다. 대통령이 개인적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종교 행위를 통해 막중한 책무로 인해 얻는 종교감을 덜 수 있다면 대통령도 '종교'는 그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대중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에서 미사와 예배를 보기로 한 것

과 관련, '종교편향' 등의 말이 오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타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종교의식'의 부재도 있다. 만약 재교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심본 고려, 다시 신중히 검토해보는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위해 청와대로 가야 하는 '종교'도 '민인의 평등'이라는 종교적 명제 앞에 뒷받침이 자성의 시선을 가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회성격 아니면 묵인

호림 <실천승교회 부의장>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비록 대통령의 신분이라도 개인의 종교는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 스님들이 신도들의 집을 찾아 가정법회를 보듯이 신부나 목사도 대통령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방문해 미사와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신도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미사와 예배를 보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과 이희호여사가 주말 외부출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청와대에서 미사와 예배를 본다면 마땅히 가정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거 김영삼대통령처럼 목사는 물론 많은 신도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집회적 성격의 미사와 예배를 주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인 것이다. 또한 김대중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온 중립적인 종교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김대통령의 처지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공인은 종교중립 지켜야

남현 <스님·불교TV 기획실장>

과거 문민정부에 자행됐던 해물사건

등 불교탄압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일어난 일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거론된 얘기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실사 개인적으로 받는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종교인에 위화감 조성 정우 <백련사 스님>

신부와 목사를 초청하여 미사와 예배를 보는 것은 개인적인 종교자유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안된다. 그렇지만 청와대라는 국가최고통수권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종교사회에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에서 종교를 보지 말고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종교계를 바라보고 바란다. 대통령의 하나의 작

편향적 시각 과민반응

김형균 <불지사 대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목사와 신부를 초청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해야 한다. 이를 놓고 종교편향이니 운운하는 것은 과민반응이요 피해망상이다. 불교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마땅히 스님을 모셔다 법회를 본다는 것을 가정해보라. 불교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신앙생활로 여길 것이다. 다종교 국가라 하지만 개인의 신앙생활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청와대 직원들 모두에게 예배나 미사를 강요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말자.

명백한 종교편향 활동

이상대 <대한불교청년회장>

통탄할 일이다. 청와대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온 국민의 정서가 담긴 곳이다. 그 곳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종교 문

화 사상 등이 수용되고 융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숭가뿐 정치 입장을 핑계로 청와대에서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 뜻을 저버린 처사이며, 특정 집단을 대변한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이다. 국민의 집단 청와대를 개인의 처소로 격하시킨 것이다. 대불청은 김대통령의 파행적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사정을 요구한다.

대통령 내외의 종교일뿐

손상훈 <전불련 정책국장>

대통령의 종교활동을 종교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된다고 본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국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시간을 정해 조용히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한사람의 개인으로서 대통령내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단지 지난 김영삼정권 때처럼 9시 주요 뉴스시간에 대통령의 종교활동이 확대 보도돼 대통령의 종교가 곧 국민의 종교인 것처럼 비추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芮光海譯

윤달수의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芮光海譯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